



제주서 평화·희망 노래 17일 '평화교류음악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기획공연으로 글로벌 평화도시연대 '제주·오스나브뤼크 평화교류음악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는 제주가 주도해 유럽의 평화도시 독일 오스나브뤼크, 프랑스 베르딩과 구성한 국제협력체다.

독일 오스나브뤼크는 전쟁문학의 거장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고향으로, 2005년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될 당시 평화도시 모델이 된 도시이기도 하다.

이날 공연에선 제주포럼 참가자 방문한 독일의 오스나브뤼크 시립극장 성악가와 제주의 음악인들이 함께 우정의 하모니를 선보인다. 귀에 익은 오페라 아리아와 외국 가곡, 한국 가곡 등 성악공연과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음악 향연을 펼친다. 공연은 무료다.



9월 '토요박물관 산책'

국립제주박물관이 9월 '토요박물관 산책' 프로그램으로 제니크린렛(사진)의 공연과 사슴책방 이보경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오는 17일 오후 6시30분 국립제주박물관 정원 잔디밭에서 펼쳐지는 '토요박물관 산책'에선 도내 청년 예술인 5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제니크린렛'의 클래식, 영화음악, 팝재즈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사슴책방' 이보경 작가는 이날 그림책 전문서점인 사슴책방의 책방지기로 활동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의 매력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또 작가의 추천 책 20권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오른지기자

마을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세운다

제주시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예술풍낭' 활동 시작 다양한 주제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생태계 기반 조성

제주에서도 생활권(마을)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2022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 수요에 기반을 둔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및 기초 단위 지역의 다양한 운영 주체와 기관의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7월 제주 예술단체 상상창고 슴(대표 박진희)과 순환곶 제주(대표 김태연)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제안, 최종 선정되면서 '제주시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사업 '예술풍낭'이 본격 활동 준비에 나서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고민을 나누던 팽나무 아래 평상이 있는 곳인 '풍낭'에서 착안한 '예술풍낭'은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 풍낭' 아래 평상을 놓는 역할을 의미한다.

'예술풍낭'은 앞으로 3년간 생활권단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예술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교육단체, 예술가, 기획자 등)를 발굴하고, 마을의 자원(예술가, 단체, 공간, 콘텐츠)을 조사·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1차년도인 올해 '예술풍낭'에 대한 인식 확산에 나서고, 2차년도엔 '예술풍낭'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3차년도엔 제주시 문화예술교육 거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예술풍낭' 사업의 본격 시작에 앞서 14일 제주문화관에서 제주시 기초거점 역할 및 운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예술풍낭 첫마중 포럼이 열렸다. 오른지기자 eijoh@ihalla.com



홍익중 작 '성산천수목'

다채로운 목판화 한눈에 '2022 국제목판화페스타 제주' 국내외 작품 100여점 전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문예회관 제1, 2전시실에서 '존재 너머 스토리'라는 주제로 '2022 국제목판화페스타 제주'를 개최한다.

목판화는 나무라는 단순한 소재를 가지고 조각도구, 재료, 인쇄 방

법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며, 독특한 질감 등 고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프랑스, 대만, 리투아니아, 일본, 말레이시아 등 5개국 21명의 목판화작가와 국내 목판화작가 37명이 참여하며, 목판화 100여 점이 전시된다.

부재호 원장은 "국내외 판화미술인들의 다채로운 목판화 작품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른지기자

일곱 명의 작가들이 펼쳐놓는 소통

2022 예술공간 이아 두 번째 선정전

2022 예술공간 이아의 두 번째 선정전 'I'm Fine, Thank You. And You?'가 예술공간 이아 전시실 1(지하 1층)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시는 배효정, 임영실, 김민희, 정영도, 정윤신, Kate Bae, Sae A Lee 일곱 명의 작가들이 함께하는 첫 번째 그룹전이기도 하다.

미국 뉴욕에서 만나 인연이 된 일곱 명의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며 소통을 선보인다. 회화, 영상, 문학, 무용 등의 작업 분야도, 주제도, 형식도, 활동 지역도 모두 다른 예술가들이 사다리 타기 그림처럼 따로

또 같이 팀을 이뤄 콜라보레이션 작품 활동을 진행했다.

미디어와 퍼포먼스를 주로 하는 배효정 작가와 회화를 하는 정영도 작가가 하나의 미디어 입체 작품을 제작했고, 같은 회화 장르이지만 전혀 다른 작업을 하는 임영실 작가와 새아리 작가는 같은 벽면에서 설치시도했다. 글을 쓰는 정윤신 작가와 회화를 하는 새아리 작가는 검은 페인팅을 만들며 서로의 상처를 공유한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작가들에게는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한 예술적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장이 될과 동시에 관객들에게는



임영실 작 '레고숲'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작가들이 만나 이뤄낸 소통 작업의 결과물을 작가의 평소 작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10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오른지기자

공하고자 기획됐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오후 6시부터 제주시 산지등대문화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무대엔 1세대 마임리스트 유진규를 포함해 범서학교, 류희, 살거스, 양길호, 김찬수, 한정수, 고재경 등 총 8팀이 온른다. 오른지기자

평화의 몸짓 향연... 제주 평화 너버벌페스타

16~17일 산지등대문화공간

마음극단 동심이 마임 공연을 준비했다. '제주섬은 평화다'를 주제로 내건 '제주 평화 너버벌 페스타'다.

이 공연은 마임리스트들과 너버벌 예술가들의 다양한 몸짓으로 평화의 의미를 공유하고 평화의 섬을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

출하고자 기획됐다.

16일과 17일 이틀간 오후 6시부터 제주시 산지등대문화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무대엔 1세대 마임리스트 유진규를 포함해 범서학교, 류희, 살거스, 양길호, 김찬수, 한정수, 고재경 등 총 8팀이 온른다. 오른지기자

국내 최대 규모 아트마켓&문화예술축제

오는 19~22일 제1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마켓 겸 문화예술축제인 '제1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 및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주제는 '다리를 넘어(Over the Bridge)'다. 지난해 '다리를 놓다' 주제에 이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넘어간다는 포부를 담았다.

주요 프로그램은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간 문화예술 교류 및 홍보의 장인 '아트마켓'과 국내·외 문화예술계 이슈를 주제로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는 'KoCACA 교류협력네트워킹',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KoCACA 공식조

청작' 등이다.

아트마켓은 160개 문예회관과 230여 개의 예술단체 및 장비업체 등이 참여하는 부스 전시와 민간 공연예술단체가 30분간 펼치는 하이라이트 시연 쇼케이스, 예술단체가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레퍼토리를 홍보하고 협업 등을 제안하는 레퍼토리 피칭으로 구성된다.

KoCACA 공식초청작은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예술의전당, 탐라광장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행사는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협회(KoCACA)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한다. 오른지기자

취 임



제주시장

제주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동지역 마을회장협의회 회원 일동

· 회 장: 송용중(노형동 월성마을)	· 감 사: 김영심(용담2동 용마마을)	· 이 사: 송신용(삼양동마을)
· 부회장: 강연백(외도동 월대마을)	· 이 사: 강윤방(외도동 신산마을)	· 이 승철(이호동 현사마을)
고성룡(해안동마을)	강중수(용담2동 동한두기마을)	이익중(도남동마을)
김영신(용담2동 월성마을)	강태정(오라동 공설마을)	최호일(아라동 간드락마을)
양성익(삼양2동마을)	김영국(화북동 청룡마을)	· 사무국장: 김영찬(노형동 월랑마을)
현관희(아라동 금천마을)	김용식(도두1동마을)	· 총 무: 이용립(도두동 사수마을)
· 감 사: 고병수(삼도2동 남성마을)	김형국(용담동 성화마을)	· 계 무: 고영배(노형동 정촌마을)

합 축 격

제57회 공인회계사 시험



강승민

주부: 김덕심(유수암) · 조모: (故)이숙자
부: 김규선 · 모: 박성운

제57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유수암 아버지 친구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집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6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여민'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